

## (2) 애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앱만이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웹은 서버에서 웹에 대한 것들을 복사해와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에서 설치 파일을 받아와 우리 PC 나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란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v1.0.0'이라고 하자.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회사마다 정책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v1.0.1 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작은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v1.1.0 이런식으로 중간 숫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중규모의 업데이트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대부분 하위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호환은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신경 써야 될 만큼의 업데이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v2.0.0 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토어에 들어가 어플을 업데이트해야 될 것이다. 업데이트를 하기 싫더라도, 개발자 측에서는 아마 '업데이트 하러 가기' 팝업 버튼 하나를 제외하고는 하위 버전의 모든 프로그램을 막아 두었을 것이다.

☞ 그런데 가끔 버전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도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들의 모든 버전을 맞추는 필요가 생긴다. 어떠한 경우일까?

💬 " 뭐야.. 1 만원이라고 해서 결제했는데, 왜 2 만원이 빠져나가지..? "

바로 이런 경우이다. 무언가 서비스 하던 것의 가격이 변동되었는데, 고객들의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맞추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는 계속 이전 버전에서의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걸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것과는 다른 가격의 돈이 빠져나가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역시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그 규모에 맞게 버전을 올려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모든 소비자들의 어플 버전을 맞추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요즘은 웹과 앱을 합쳐 놓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즉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들은 웹을 사용하였기에 어플이

버전 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우선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다. 즉,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장점과 모바일 웹의 장점을 한 데 모으기 위해 개발 되었다고 보면 된다. 어느 부분이 앱이고 어느 부분이 웹인지는 'API'를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

## 6. 데이터베이스



### (1) 데이터베이스란 뭘까?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 틀려서는 안된다. 데이터는 단 1%의 결점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 속성을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한다.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만일 데이터가 바뀌게 된다면, 특히 은행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돈이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 등 아마 난리가 나게 될 것이다.

☞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 만약 컴퓨터가 A 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움직인다 하였을 때 1 번~n 번까지 돌아다니며 그 데이터를 찾고, 수정 요청이 들어왔다면 수정까지 해야한다.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다면 상관이 없을 이야기지만, 만약 100 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1 번~10,000 번까지의